

## 상습 性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운다

앞으로 상습 성범죄자들은 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수 강도강간 및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도 대상이다.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쳐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를 수차례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부착 대상이다. /연합뉴스

## 초등생·여학생 학교폭력 '심각'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1년 8.5%, 2002년 11.2%, 2003년 17.5%이었으나 올해는 17.8%로 늘어났다.

2006년의 경우 초등학생 피해자는 전체 학생 402만2천895명의 17.8%인 33만681명으로, 중학생 피해자 16만7천649명(전체 201만5천222명)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력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해 학생 비율은 99년 25.6%, 2001년 29.1%, 2002년 29.5%에서 2006년에는 무려 45.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여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99년 조사에서 2.2%에 머물렀지만 2006년 조사에서는 6배인 14.2%였고 피해자 비율도 99년 4.4%에서 2006년 13.9%로 3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20대, 심야 편의점 돌며 강도짓

광주 서부경찰은 19일 심야시간 편의점을 돌며 강도짓을 한 이모(26·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0일 새벽 광주시 서구 삼촌동 F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편의점 3곳에서 15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희망·좌절 '교차' 44에 '웃고 운' 광주

- 3 - 동계 올림픽 첫 3관왕·김연아 '트리플'
- 6 - 6자회담, 한반도 운명 좌우할 숫자
- 11 - 황우석 즐기세로 11개 모두 '가짜'
- 14 - 노벨평화상 14명 '평화 도시' 광주에
- 44 - 광주 44개월 무역흑자·환경미화원 44 대 1
- 1천만 - 불우이웃 돕는 '천사'들의 마음

조사위원회는 1월10일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나온 11개의 즐기세포는 모두 '가짜'라고 발표했다. '실마'가 '현실'로 되는 순간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 황교수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해야 했다.

반면 '3'은 즐거움이였다. 쇼트트랙의 간판 안현수(21·한국체대)와 진선

유(17·광문고)가 2월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3관왕에 올랐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6월 '독일월드컵' 첫 경기에선 아프리카 토고에 2-1로 이겨 52년만의 월드컵 해외 첫 승을 신고하며 승점 3을 챙겼다. '피겨 요정' 김연아(군포 수리고)를 세계 정상에 올려

놓은 것은 연속 3회전에 이은 공중 3회전 연기였다.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88'은 10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숨지면서 '진실을 숨기는' 뜻으로 둔갑했다. 12·12, 5·18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 신군부와 관계를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올해 세상을 등진 홍남순 변호사·강원릉 목사와 비교되는 삶이었다.

전쟁과 평화도 숫자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월 광주엔 14개의 별이 됐다. 광주시가 주최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에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등 14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개인 7·단체 7)가 모여 5월 정신과 세계평화를 합창했다.

하지만 '6'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숫자가 됐다. 북한은 7월 모두 6기의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여기서 출발한 '북핵 2차 위기'는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격랑 속으로 몰고갔다. 하지만 12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시작돼 고비를 넘겼다.

'1천만'은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천사'의 상징이 됐다. 익명의 한 독자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서구청에 매일 1천만원을 보내의 료비가 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탁했다. 올해 KPGA 삼금왕·다승왕·신인왕 등 5개 타이틀을 싹쓸이한 프로골퍼 신지애(18·해룡고·하이마트)도 지난 1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장기이식 환자 기금으로 1천만원을 내놓아 '천사 그룹'에 합류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노벨평화상 수상자 14명과 국내외 평화·인권운동가가 지난 6월15일부터 3박 4일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모여 5·18 정신의 확산과 한반도 평화를 논한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14'는 올해 평화를 상징하는 숫자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화훼단지 허위 준공검사 나주시 공무원 6명 입건

영농조합에 국고 보조금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나주경찰은 19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준공이 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해 준 A씨 등 나주시청 공무원 6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원예과와 건축과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올해 초 나주 N 화훼영농조합 대표 서모(49)씨가 12억3천1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나주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

중심 화훼단지시설을 마치 준공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서씨의 화훼영농조합 단지 시설이 2005년 2월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 공사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준공 검사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서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서씨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비(24억8천만원)의 50%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입찰금을 반복한 무통장 입금증을 근거로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 보조금을 타냈다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나주시청의 경우 지난 10월에도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채 문화재 인근에 건축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자 이를 감추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가 공무원 4명이 허위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평등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 회대단지!  
[특별한 3·3·33 평면 33층 3300㎡]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즉시발판처리부담이 없습니다.  
[부담 없는 불만 처리 서비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주주위원회

"특정대 합격축하 현수막 철거하라"

○매년 입시철 각 고등학교가 교문에 내거는 특정대학 합격축하 현수막에 대해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 설치 반대하는 모임'(이하 반대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과 각 학교는 교문 곳곳에 설치된 합격 축하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

○반대모임은 "일선 학교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건 것은 교육 이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를 향한 방문한 뒤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천명.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은 열 효율, 저비용, 장수명, 보일러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 저렴한 심야 전기 보일러를 특별공급  
▶ 세련된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 자동 온도조절장치, 편리한 사용  
▶ 안전장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

하룻밤 배신 저가로 난방을 하십시오!

경동보일러 구입 문의: 062-673-4981 (광주) / 010-9469-9373 (전남)

**Cell Banking**

셀뱅킹은 산상탈세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발발·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형 의료 서비스입니다.

신원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신원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신원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 | 한국생명보험